



##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최초 실시 및 결과 공표

대한산업보건협회 9개 센터(경기·경기북부·경북·광주·대전·안산·전북·천안·충북센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성서병원, 굿모닝보건환경 등 15개 기관이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잘 실시하는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지난 1981년,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도입한 고용노동부는 2012년 처음으로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 14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6.11~9.21) 하고 2012년 12월 28일(금), 그 결과를 공표했다.

지금까지는 ‘정도관리 제도’를 통해 작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평가결과, 대한산업보건협회 9개 센터(경기·경기북부·경북·광주·대전·안산·전북·천안·충북센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15개 기관이 우수기관(S등급)으로 평가되었고 그 밖의 59개 기관이 A등급, 48개 기관이 B등급이었고, 25개 기관은 C등급으로 다소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우수기관(S등급)으로 평가받은 15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기점검을 2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계속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면 지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평가내용 중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은 행정지도 및 교육·컨설팅을 통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대학 및 관련 학회 소속 전문가 등 9명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반이 측정기관을 방문, 측정결과의 신뢰도,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등 총 4개 부문, 59개 항목을 평가했고 최종 종합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 S등급 (15개소)

▲ 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경기북부·경북·광주·대전·안산·전북·천안·충북센터)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굿모닝보건환경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동해) ▲ 목포중앙병원 ▲ 성서병원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삼성전자(주) 근로자 ‘유방암’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삼성전자(주) 00공장 임플란트 공정 등에서 약 4년 8개월간 근무 후 ‘유방암’으로 사망한 여성근로자(당시 36세)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으며, 일부 외국 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방암 발병이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